

전후 문학의 세계성과 현대적 전통의 고안

- 『문예』지 평론을 중심으로 -

이 민 영*

1. 서론
2. 근대 이후의 시대와 새로운 보편성으로서의 세계문학
3. 냉전의 세계인식과 보편적 민족 문학으로서의 전통론
4. 결론

1. 서론

1950년대는 한국 문학의 담론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였던 시기이다. 이는 1945년의 해방으로부터 기인한 결과의 일부였으며, 동시에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기도 했다. 해방 후부터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까지의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많은 작가들이 월북을 했으며, 남아있는 일부 작가들에게는 대일 협력과 관련된 의심 어린 시선들이 남겨졌다. 이와 같은 곤궁한 문단의 상황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더욱 심화되었는데, 남과 북을 오가는 전선으로 인해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문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이념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1949년에 창간된 『문예』는 ‘순수문예지’라는 선명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빈곤한 문단 상황에 정면으로 대응하고자 했던 매체이다. 남한에 남아있는 작가들이 과거 청산이나 이념의 문제로 활동의 제약을 경험하고 있을 때, 『문예』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는 기존의 작가들에게서 정치성을 삭제하고 새로운 작가군들을 등단시켰다. 이를 통해 분단된 국가에서 새로운 민족 문학의 실체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예』가 전쟁 중에도 지속적으로 발간되었다는 점은 이들의 노력이 얼마만큼의 적극성을 띠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문예』는 전쟁 직전 발간된 1950년 6월호를 제외하고도 전쟁 중에 1950년 12월, 1952년 1월, 1952년 5월, 1953년 2월, 1953년 6월, 1953년 8월호 등 총 6권을 발행하였다. 그중 1950년 12월호는 전시판으로 발행되어 공산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발화¹⁾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도 창작품과 문예이론 소개에 집중하면서 ‘순문예지’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간다.²⁾ ‘순문예지’라는 『문예』의 정체성은 발행의 주체에게뿐만 아니라 독자층에게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가 『문예』를 구할 수 없어 아쉬워하는 독자들의 소식 등을 전하며, 미리 선구매를 할 것을 요청할 정도로,³⁾ 『문예』는 당대 유일무이한 문화 예술 잡지로서의 강고한 지위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문제적인 것은 이와 같은 순문예지로서의 자부심을 지닌 『문예』의 편집 주체들이 어떤 시기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담론을 구축해낸다는 점이다. 김동리, 조연현, 모운숙을 주축으로 하는 『문예』의 편집진은 『문예』를 통해 순수문학의 의미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들의 논의에는 표면적 의도와는 다른 강렬한 정치적 지향성이 담겨있었다. 이들의 내세운 순수문학론의 휴머니즘은 종종 북한을 비인간으로 한정하면서, 순수한 문학의 영역을 반공주의 영역으로 축소해왔던 것이다. 해방후 순수문학론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순수문학론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들의 논의에 담긴 폭력성과 모순적 특징을 읽어 내는데 성공하였다.⁴⁾ 하지만 순수문학론을 하나의 ‘비어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1) 해당하는 글은 다음과 같다. 이선근, 『決戰文化人에게檄함(理念의勝利)』; 조연현, 『共產主義의運命(6·25事變의世界史的意義)』; 김기완, 『戰爭과文學』; 조영암, 『殘留한附逆文化人에게(保導聯盟의再版을警告한다)』; 김광주, 『北으로敗走한文化人에게』.

2) 『문예』의 편집진은 『창간오년사』를 통해 “팔일오 해방이후의 우리 문단과 우리 문학을 실질적으로 대표해온” 『문예』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1950년대 초 문학계에서 『문예』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창간오년사』 『문예』(1953.9).

3) 『편집후기』 『문예』(1950.3).

4) 김준현, 2010 『‘순수 문학’과 잡지 매체』 『한국근대문학연구』 22; 남원진, 2007 『반공국가

과정에서 이들의 논의가 전후 한국 사회에서 강력한 담론적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동인을 분석해내는 것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나의 ‘년센스’⁵⁾로 간주되는 순수문학론은 순수성을 망각하고 있는 담론 정도로 그 의미가 축약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순수문학의 모순적 구조가 오늘의 한국 문학을 이해하게 만드는 주요한 근간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들의 문학론이 내포한 모순은 순수문학을 주장한 일부 문인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 후에도 안정적인 국민국가를 구축하지 못한 한국사회의 현실과 이를 반영하는 문단의 한계를 예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문예』가 내세운 순문예지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당대의 문학담론이 정치를 배제한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학을 남한의 ‘유일한’ 문학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한다. 스스로의 문학을 유일한 문학의 형태로 간주하는 『문예』의 편집 주체들은 곧 ‘순수문학’을 지향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민족진영’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한다. 해방 직후 가장 정치적이었던 ‘민족’의 개념을 비정치적 문학을 내세우는 순수문학론으로 전환해내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실로 매우 강력한 폭력과 모순의 결과물들을 야기하였지만,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순수문단의 민족문학론은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된다. 『문예』는 이러한 전환의 과정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는 매체로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이후 청문협)을 중심으로 계급문단과 대립했던 순수문학의 담론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장하여 세계와 민족을 사유하는 유일한 문학적 전망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기존의 연구에서 『문예』는 주로 청문협의 문인들을 중심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로 인해 『문예』는 종종 김동리와 조연현의 문학론을 살피는 과정의 일환으로 다루졌다.⁶⁾ 그 결과 『문예』에 대한 연구는 순수문학론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하는

의 법적 장치와 <예술원>의 성립 과정 연구」 『겨레어문학』 38: 김한식, 2005 「김동리 순수문학의 세 층위」 『상허학보』 15: 김한식, 2008 「해방 후 순수문단과 세계문학의 개념: 김동리와 조연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8: 유임하, 2006 「순수의 이데올로기적 기반」 『우리말글』 38.

5) 김한식, 2008 위의 글, 253면.

6) 신형기, 1988 「해방직후 문학비평의 흐름」 『해방 3년의 비평문학』, 세계사: 이봉범, 2006

것에서 크게 진전되지 못했다. 실제로 추천사나 월평의 형태 외에 김동리가 『문예』에 직접적으로 작품을 실은 적이 거의 없다는 점, 『문예』에 모운숙을 중심으로 하는 미군정의 영향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점과 실제 청문협 계열의 문인으로 분류될 수 없었던 염상섭, 황순원, 백철 등의 작가들이 다양한 글을 남기고 있다는 점 등이 간과되어 왔다. 이상의 사실들을 살펴볼 때 ‘순문예’라는 『문예』지의 정체성에는 정치적 문학에 대한 배제의 논리뿐만 아니라 유일한 민족 문학을 자칭하면서 전개해온 강력한 포섭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포섭의 논리를 이해하는 것은 순수문학론의 정치성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아가 이들이 지닌 담론적 힘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급문학과와 경험 과정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정치성 배제의 논리에서 문학적 포섭의 태도를 강화하게 된 전후 민족진영의 문학론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성과 전통의 관계를 바탕으로 『문예』를 살펴보려는 시도는 당대의 순수문학론이 지닌 정치성을 하나의 모순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아가 이들의 담론적 위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게 한다. 냉전체제의 수립과 한국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1950년대에는 세계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다. 1950년대의 세계성 인식은 주로 냉전체제의 수립과정과 연관되면서 수용적인 차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냉전 문화의 일부로 설명돼왔다.⁷⁾ 그 결과 1950년대 세계성에 주목한 기존의 논의들에서 냉전의 세계에 대한 민족 문학적 대응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순수문학론의 세계주의는 민족문학론과 다를 바 없는 공허한 것으로 설명되거나⁸⁾ 혹은 서로 반대되는 것⁹⁾으로 규정되었다. 전후 문단에

「잡지 『문예』의 성격과 위상」 『상허학보』 17; 김한식, 2008 위의 글; 김준현, 2010 앞의 글; 임신희, 2012 『문예의 민족문학과 휴머니즘』 『국어국문학』 161.

7) 장세진, 2012 『상상된 아메리카』, 푸른역사; 정영진, 2010 「1950년대 세계주의와 현대성 연구」 『겨레어문학』 44; 박지영, 2010 「1950년대 번역가의 의식과 문화정치적 위치」 『상허학보』 30; 이은주, 2006 「1950년대 문학비평의 세계주의와 미국적 가치 지향의 상관성」 『상허학보』 18; 김한식, 2008 위의 글; 손혜민, 2014 「잡지 문화세계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9.

8) 김한식, 2008 앞의 글.

9) 오창은, 1999 「전후 실존주의, 전통론의 단절과 계승」 『어문논집』 27.

서 세계문학과 민족문학의 개념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¹⁰⁾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관계성을 역동적으로 고찰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다.¹¹⁾

1950년대의 문학론에는 냉전의 세계체제에 기반하는 반공주의의 이념과 해방 직후부터 지속되었던 민족 문학 건설이라는 두 개의 지향점이 존재한다. 일견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목표에는 대한민국 문학의 정체성을 구성해내야 한다는 공통적인 목표가 전제되어 있다. 김동리와 조연현, 모윤숙을 중심으로 발간된 『문예』의 평론들은 이와 같은 목표 의식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전후의 세계의 상을 새롭게 재현하고 그 내부에서 민족 문학의 자리를 마련해내고자 한다. 『문예』에는 냉전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번역 기사들 및 해외 문학 소개에 관련된 평론들과 이와 상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통에 관련된 평론들이 다수 연재된다. 『문예』에 나타난 세계에 대한 인식이 민족적 전통과 이를 반영하는 민족 문학의 수립이라는 과제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한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는 『문예』에 실린 다양한 글들을 분석해나가고자 한다. 세계문학과 전통론에 관련된 『문예』의 비평들을 통해 순수 문학론을 민족의 문학으로 전환하고 냉전의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전후 문단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나간 남한 ‘민족진영’의 논리와 이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0) 김동리는 민족 문학에는 민족 정신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선 민족 정신을 민족 단위의 휴머니즘으로 설명한다. 이때의 민족정신은 데모크라시로 표방되는 세계사적 휴머니즘의 연속적 필연성에 놓인다. 따라서 민족문학과 세계체제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휴머니즘적 지향을 공유한다는 점에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동리, 2013 『순수문학의 진의』 『김동리 문학전집』 32, 계간문예 참조.

11) 실제로 전쟁을 거치며 남한 문단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보해나간 청문협 문인들을 중심으로 세계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신천지』와 『사상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성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경향을 방증한다. 세계성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 참조. 장세진, 2005 『전후 아메리카와의 조우와 '전통의 전유』 『현대문학의 연구』 26; 이봉범, 2010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 김예림, 2007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상허학보』 20; 이희정, 2016 『잡지 『신천지』를 통해서 본 전후 인식의 양상』 『세계문학비교연구』 55; 권보드래, 2011 『『사상계』와 세계문화자유회의』 『아세아연구』 54(2); 임지연, 2014 『1960년대 『사상계』의 세계 이해와 세계문학담론』 『겨레어문학』 52; 김복순, 2015 『『世界性』의 專有와 現代文學想像의 인식장치』 『어문연구』 43; 박지영, 2015 『냉전 지의 균열과 저항 담론의 재구축』 『반교어문연구』 41; 김주현, 2012 『『사상계』 동양담론 분석』 『현대문학의 연구』 46.

1950년대의 한국 문단은 휴머니즘의 논리를 통해 보편적 이상을 구체화하고 자유진영을 중심으로 세계성을 구현한다. 자유진영의 반공주의를 휴머니즘이라는 보편적 이상으로 설명하면서 순수문학론은 민족 문학과 냉전의 체제를 효과적으로 결속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한 축을 담당한 우익의 문학론이 아닌 보편적 휴머니즘의 문학론으로 확장된 순수문학론은 1950년대 문단에서 보편성을 전유하면서 전후 비평의 중심적 기조를 만들어나간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들의 세계인식이 미국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문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문예』의 세계인식이 냉전체제 하의 반공주의로 귀결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미국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중심으로 세계성을 파악한다면 당대의 문학론은 냉전체제 하의 반공론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예』의 비평들은 단순히 냉전체제의 반공주의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계체제와 상호작용하면서 민족 문학이라는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남한의 유일한 문학이라는 자기 정립의 과정을 거쳐나갔다. 『문예』를 통해 자유진영에 동화되는 세계인식뿐만 아니라 진영의 논리로 환원 될 수 없는 담론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예』는 전쟁이라는 냉전의 예외성을 적극적으로 사유하면서 민족적인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탈락되는 특수한 한국 문단의 상황들을 새롭게 의미화한다. 이들의 민족 문학론은 힘의 균형을 전제로 하는 냉전이 아닌 문명적 승리를 기원하는 열전의 논리로 전환되어 전쟁을 승인하는 강렬한 반공의 담론을 만들어나간다. 그것은 진영의 논리인 동시에 이를 초과하는 분단사회의 반공주의이다. 따라서 세계성과 전통에 관련된 논의를 통해 발견되는 순수문단의 민족문학론은 냉전 문화에 기반하는 반공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또 다른 반공주의의 형태¹²⁾를 예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당대

12) 다시 말해 냉전을 이해하는 서구의 방식이 비서구 세계의 냉전 경험에까지 반드시 확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험과 지식의 차이가 세계적 냉전의 역사를 평가할 때 중심 이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냉전의 의미는 비판적인 비교와 성찰의 대상일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냉전의 의미를 부단히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류적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양한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 '붕괴이후'나 '1989년

의 문학 담론을 냉전문화에 의한 반공주의로 환원하기보다 민족주의적 성격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한 열전 사회의 문화 담론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민족 문학과 반공 담론의 공모관계뿐만 아니라 그 균열의 지점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미소 중심의 냉전문화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국사회의 전후문학과 문화 인식을 규명하여 냉전체제 하의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2. 근대 이후의 시대와 새로운 보편성으로서의 세계문학

『문예』는 순수문예지라는 정체성을 기조로 삼아 문학 창작뿐만 아니라 문학 담론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결과 『문예』지에는 매 권마다 약 3개에서 5개 정도 평론이 꾸준히 실리는데, 이러한 평론들이 1949년 이후, 즉 다수의 문인들이 월북한 이후의 것들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문예』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고 UN 총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된 직후의 사회적 상황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대한민국 문학의 내포 개념을 구성해 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이전의 민족 문학이 좌익의 문인들에 의해 선점되면서 근대적 문학의 건설¹³⁾이라는 목표로 구체화 되었다면, 청문협 중심으로 재편된 남한 문단에서 근대적 문학의 개념은 비판의 대상으로 변모한다. 좌익 문인들이 추구한 근대 문학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던 것은 김동리로 그는 ‘휴머니즘’을 내세워 기존의 민족 문학 건설 담론을 기계적, 공식적 문학으로 간주한다. 1949년에 창간된 『문

이후’같은 편한 관용구를 가져다 씌으로써, 냉전의 의미를 분석하는 과정이 폐쇄성을 띠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권현익, 2013 『또 하나의 냉전』, 민음사, 36면.

13) 임화와 이원조는 이러한 논의에 앞장서면서 해방기 민족 문학 건설의 과제를 구체화한다. 임화, 1945 『현하의 정세와 문화운동의 당면 임무』 『문화전선』(1945.11); 임화, 1946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화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 『문학』(1946.7); 이원조, 1945 『조선문학의 당면과제』 『중앙신문』(1945.11.6-12); 이원조, 1946 『민족문화 발전의 개관』 『민고』(1946.5); 이원조, 1946 『민족문화 건설과 유산계승에 관하여』 『문학』(1946.7).

예』는 이와 같은 변모하는 민족 문학의 개념을 실증하는 매체였다. 『문예』는 민족 문학 건설의 과제를 세계 문학과 연계하려는 직접적인 시도들을 통해 냉전 체제하의 세계성을 내포한 새로운 민족 문학을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주로 서구 문명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는 양가적인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문예』지에는 기존의 문학 잡지들에 비해 다양한 해외 기사문들이 실린다. 해방기의 대표적인 문학잡지라고 할 수 있는 『백민』이나 『문학』과 달리 『문예』에는 매호에 해외 문학을 소개하는 평론¹⁴⁾이나 번역 기사문들이 실린다. 『문예』에 소개되는 해외 문학(표 1)은 주로 영미문학과 불문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평론들은 문학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예술 영역-미술, 음악-등을 포함한다.¹⁵⁾ 번역을 통해 『문예』에 게재된 글에서 주목할 것은 인도의 문학을 소개하는 발둔딩그라의 글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진영적 경계 내부에 속하는 문학을 세계의 문학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서구 문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미국 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문학의 구도를 재편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드러난다.

14) 『문예』에 실린 외국의 문학과 예술을 소개하는 글은 다음과 같다. 김진섭, 『파우스트 소묘』(1949.8); 김진섭, 『문학과 문명』(1950.3); 김진섭, 『중독문호열전(상)』(1949.10); 김진섭, 『중독문호열전』(1949.11); 석동수, 『D.H 로렌스의 생활과 문학』(1949.8); 김춘수, 『아네모네와 질풍노도기』(1949.11); 김춘수, 『릴케와 천사』(1949.12); 김춘수, 『릴케적실존』(1952.1); 김춘수, 『옛세이와 현대정신』(1953.9); 김춘수, 『문학이라는 괴물』(1953. 11); 박중홍, 『이해와 사상』(1949.9); 이종우, 『듀우이와 현대철학』(1949.10); 김기석, 『현대정신의 특징』(1949.12); 오종식, 『현대정신의 파탄』(1950.1); 배아성, 『헤-겔이후의 독일철학(1)』(1950.1); 배아성, 『헤-겔이후의 독일철학(하)』(1950.3); 조연현, 『떠스떠엠프스키론(1)』(1949.12); 조연현, 『도스도엠프스키-론(2)』(1950.2); 조연현, 『구경을 상징하는 사람들』(1950.3); 조연현, 『병과 건설 인간과 인격』(1953.2); 조연현, 『문학연구에 관한 기초적 자세』(1954.1); 조연현, 『실존주의해의』(1954.3); 조연현, 『자라가는 신』(1952.1); 손우성, 『현대불문학의 방향』(1953.2); 모윤숙, 『한국문화의 독자성』(1953.2); 임원식, 『베토벤과 인간성』(1953.6); 양병식, 『샤르트르의 문학론(상)』(1953.9); 양병식, 『샤르트르 문학론(하)』(1953.11); 오종식, 『인간과 진화』(1953.11); 송옥, 『현대영시와 그 전통』(1954.1); 장경학, 『인형과 인간』(1954.3).

15) 비비에 L, 『현대주의의 신전망』(1950.6); 임원식, 『베토벤과 인간성』(1953.6).

〈표 1〉 『문예』의 번역 평론, 번역 창작 목록

종류	발행년도	저자	제목	비고 (출처, 저자 표기 등)
번역 평론	1949.11	H.C. 칸비	미국문단총평	
	1949.12	스티워드	교육과 문화	James, L. Stewart
	1950.1-2	앙드레 모로아	아랑의 인상기	Andre Maurois, <i>Digest</i> , 1947. 9.
	1950.1.	맬컴 카우리	세계문화화 한 미국문학	Malcolm Cowley, "American Books Abroad", <i>Liter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i> , Macmillan 1947.
	1950.3	발둔 딩그라	현대인도문학의 윤곽	
	1950.4	T.S. 엘리엇	전통과 개인의 재능	T.S. Eliot,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 <i>The Egoist</i> , 1919
	1950.6	비비에 L.	현대주의의 신전개	
	1950.5-6	모튼 피제벨	20세기 미국문학평론계	Morton Dauwen Zabel
	1952.1	삐에-로 에마뉴엘르	현대문학의 고찰	<i>la nef</i> , 1950.12
	1952.1	A.J. 토인비	역사와 문학	Arnold Joseph Toynbee
	1952.5	링크 박사	현대 미국의 계관시인은?	
	1952.5	포크너	문학이란 무엇인가?	William Faulkner
	1953.2	E. 바겐크네히트	전설과 현실	Edward Wagenknecht, "Legend and Reality", <i>Cavalcade of the American Novel</i> , 1952,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53.2	모운숙	한국문화의 독자성	강연록(1952.12)
	1953.9	맥스웰 게이스마	전후 미국의 신진 작가들	Maxwell Geismar, "The Postwar Generation in American Arts and Letters," <i>Saturday Review</i> , 1953. 3.
	1953.11	셔우드 앤더슨	젊은 작가에게	Sherwood Anderson, <i>Atlantic Monthly</i>
	1953.12	앙리 마르세르	비평의 기능	현대지, 1953.8
번역 창작	1950.1	쥘 스타인 백	국화	John Steinbeck, "The Chrysanthemums", Harper's, 1937.

	1950.4	모리-칼라간	장광설	Morley Callaghan, "Rigmarole", <i>Anthology</i> (Whit Burnett ed.), 1945
	1953.2	R.W. 립케	시와 음악	릴케(Rainer Maria Rilke), 말테의 수기(1910) 中
	1953.9	헤밍웨이	살인패	Ernest Hemingway "The Killers", <i>Scribner's Magazine</i> , 1927.
	1953.12	존 홀리트	제스츄어	John Hewlett, "Russian Gesture", (Whit Burnett ed.) <i>Story: The Fiction of the Forties</i> , Dutton, 1949
	1954.1	T.S.에리오프	J. 엘프리트 프드록의 연가	T. S. Eliot, <i>The Love song of J. Alfred Prufrock</i> , 1915.
	1954.3	이브린 엘킨드	새아침	Evelyn Elkind, "A New Morning for Paula", <i>New Voices: American Writing Today</i> , PermaBooks, c1953.

1949년 12월의 『교육과 문화』는 미공보원장 스티워드의 특별기고문을 실은 것인데, 미공보부가 냉전 진영 내부에서 미국적 제도와 가치를 소개 선전하는 역할을 했다¹⁶⁾는 점에서 『문예』가 미국의 문화적 가치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는 링크 박사의 글 『현대 미국의 계관시인은』이라는 글을 통해서도 발견되는바, USIS 미공보원 차장으로 확인되는 링크 박사는¹⁷⁾ 시인 제임스 휘트컴 라일리(James Whitcomb Riley)를 중심으로 미국의 시 경향을 '민주주의적이고 정신적인 문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공보부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문예』의 간행에 깊이 관여한 모운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¹⁸⁾

16) 허은, 2003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USIS)의 역할과 문화전파 지향』 『한국사학보』 15, 229면.

17) 『사실 왜곡은 안된다. 링크 미공보원차장 기자에 언명』, 『동아일보』, 1952.5.29.

18) 모운숙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미국공보원으로부터 종이보조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1949년 6월에는 스티워드와 모운숙이 만남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문예에 미친 미공보원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국공보원당국자와 한국문화인이 간담』, 『동아일보』, 1949.6.20; 이봉범, 2006 앞의 글 참조.

『문예』는 미국의 공보부와 긴밀한 관련성 바탕으로 미국의 문화 선전의 내용을 전파하는 한편, 새롭게 구상되는 냉전 체제하에서 한국문화의 기능과 역할을 역설하기도 한다. 모윤숙의 『한국문학의 독자성』은 냉전의 문화 담론에 관한 한국 문단의 직접적인 반응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글은 1953년 2월에 실린 글로 모윤숙이 1952년 12월 영어로 주한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방송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가 “글을 속기 해석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번역 기사에 포함될 수 있는 글이다. 이 강연의 청자는 주한 외국인으로 모윤숙이 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문화의 특수성이 아니다. 모윤숙은 UN군이 한국에 출병한 이유를 밝히는 과정을 통해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東洋에는 일찍부터 情神의 權威와 그 存在에 至上의 價値를 두는것이 그 傳統이 되어왔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歐羅巴文化가 計算하는 情神의 基礎위에서 形成되어감에 따라 自己도 모르게 神을 背反해 갔으나 東洋의 智慧는 暗算하는 形式으로서 그러나 늘 神과 接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東洋의 智慧는 오늘에 있어 歐羅巴의 精神的인 絶望과 悲劇을 防止하고 救濟하는 唯一한 文化的原泉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東洋의 智慧가 韓國에서 具體화된 것이 바로 韓國文化의 獨自의인 한 形態인 것입니다. UN軍은 이러한 韓國文化를 그 破滅에서 救護하기 爲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며 全人類은 이러한 韓國의 적은 한 文化가 全人類에게 새로운 文化的인 한光明이 될것을 믿고 우리에게 援助하려는 것인줄 압니다.¹⁹⁾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괴테의 명제를 참조하며 전개되는 모윤숙의 논리는 민족적인 것을 통해 세계적인 것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던 김동리의 문학론과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모윤숙에 의해 제시된 한국문화의 독자성은 ‘정신문화’와 ‘정신적 창조성’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할 때, 물질문명에 있어서 “근대적인 후진성”을 지닌 한국은 정신적 문화의 발전을 위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설정된다. 전쟁으로 인해 냉전 강국들에게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받아야할 입장에 놓인 한국의 지식인들은 외부의 도움을 단순히 인류애적 희생과 동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스스로의 문화적 가치를 정신적인 것, 근대 문명이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설

19) 모윤숙, 1953 『한국문학의 독자성』 『문예』(1953.2).

정함으로써 문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해 한국을 지원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기준으로 세계의 문화를 나누고 한국 사회를 발달한 정신문명의 사회로 배치하는 것은 『문예』가 내세운 문명비판적 태도의 근간이 된다. 『문예』는 발간 초기 〈현대사상강좌〉를 구성하여 당시 한국철학계에 대표적인 학자들의 글을 싣는 데 힘쓴다. 그 결과 박종홍(『이해와 사상(하이데거와 야스퍼스의 방법적 차이)』, 1949.9), 이종우(『듀우이와 현대철학』, 1949.10), 김기석(『현대정신의 특징』, 1949.12), 오종식(『현대정신의 破綻』, 1950.1) 등의 글이 발표되는데, 경성제국대학 출신의 박종홍을 제외하고는 일본 유학을 통해 서양 철학을 배운 학자들을 필자로 삼고 있다. 『문예』의 편집진은 이들의 글을 싣게 된 것에 의욕과 자부심을 드러내며²⁰⁾ ‘현대의 사상’을 규명해내기 위해 노력한다. 이들의 글은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듀이의 실용주의 등 서구의 사상들을 차례로 소개하는 한편, 현대 서구의 사상들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사상을 단순히 수용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대 초월이라는 목표의 동인으로 삼고자 한다.

歐羅巴의 現代는 어대까지던지 歐羅巴의 近代의 延長 또는 終末로서 西洋 現代의 情神은 그대로 西洋近世情神의 呻吟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 Nietzsche의 疴病的인 思想과 態度가 十九世紀를 닫히는 棹尾의 빛이라고도 하거니와 이것은 그대로 『歐羅巴의인 것』의 輓歌이기도 하다. 歐羅巴 情神의 開展은 이미 十九世紀로서 마친 것이고 지금은 『歐羅巴의이 아닌 것』의 世紀가 아닐까?²¹⁾

김기석의 글은 “현대 정신을 분열과 대립의 정신”으로 설정하면서 동양과 서양을 기준으로 세계의 문명을 구획한다. 서양의 학문과 제도가 기계주의에 흐르고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동양”이 “새로운 세계사 개전의 주체”가 될 것임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일본제국주의 시대 이후 금기시됐던 대동아공영의

20) 『편집후기』 『문예』(1949.9) “이것이(현대사상강좌-필자주) 매달 계속되는 동안에 조선 문학의 현대적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려는 본지의 의도가 차차 밝혀질 것이다.”

21) 김기석, 1949 『현대정신의 특징』 『문예』(1949.12).

상상이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의 형식으로 변화되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김기석의 현실인식은 오종식의 글에서 ‘원자탄’이라는 강력한 상징으로 환원된다. 1950년 1월에 발표된 이 글은 여전히 2차 세계대전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계를 강조하고 그 위기의 극복 방안을 “서양 근대정신의 초극”에서 찾고자 한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서양 근대정신으로 인한 위기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갈등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후의 불안과 혼란을 역설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파탄된 서양의 현대 정신’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전망을 드러낸다.

〈현대철학강좌〉는 독일의 실존주의(박종홍), 미국의 실용주의(이종우)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상적 경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2차 세계대전 후 구성된 새로운 ‘현대’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현대의 사상들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강조되는 것은 서구적 현대사상들이 지닌 한계이다. 박종홍은 “무력한 철학”이라는 실존주의에 대한 비난을 직시하면서 이를 휴머니즘적 태도로 적극적으로 의미화하고자 하며, 이종우는 듀이의 철학이 “주체적인 자유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 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이들의 태도는 서구를 중심으로 현대의 철학적 사조를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이를 수용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이들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전쟁으로 황폐해진 근대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당대적 문예 사조를 논의하는 『문예』의 평론에는 서구적 보편, 근대 문명으로 인한 인류의 좌절과 불안에 대한 의식이 공유되어있다.²²⁾ 『문예』는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을 근대의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한다. 근대의 등장에 르네상스적 인본주의가 근간이 되었음에도 근대는 실패한 시대, 곧 휴머니티를 상실한 시대로 설정된다. 근대의 문명적 실패를 증거하는 것은 양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발발이다. 전쟁은 근대적 기계문명의 결과로 환원된다. 그리고 냉전의 체계는 새로운 시대가 아닌 극복되지 못한 근대의 결과 즉, 기계적,

22) 앞서 살펴본 〈현대철학강좌〉 외에도 『문학과 문명』(김진섭, 1950.3), 『불안의 해소와 문학』(유동준, 1953.2), 『에세이와 현대정신』(김춘수, 1953.9), 『실존주의해의』(조연현, 1954.3) 등의 글을 통해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살펴볼 수 있다.

공식주의적 공산주의의 유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근대 이후의 새로운 시대를 요청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때 근대 이후의 시대 즉, '현대'를 구상하기 위한 동양적 정신문명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실패한 근대 문명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청은 『문예』를 통해 등장하는 세계문학의 실체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문예』의 번역 기사문과 창작 작품들이 미국의 로스트 제네레이션 세대의 문학과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문예』는 양차세계 대전 후 서구사회의 불안상을 반영하는 예술 및 철학 사조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한계에 직면한 서구 문명을 실체화하고자 한다. 『문예』는 미국 문학을 중심으로 세계문학의 개념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특히 로스트 제너레이션 세대의 문학²³⁾에 집중한다. 미국 문단의 로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한 관심은 김환기, 천경자 등의 한국 미술가의 작품으로 표지를 장식했던 『문예』가 윌리엄 포크너의 얼굴을 내세운 1952년 5월호에서 가장 도드라진다. 1952년 5월호에서 『문예』는 1949년 노벨상을 받았던 포크너를 다시 불러내고 그의 수상소감을 소환해낸다. 노벨상의 수상자이자 로스트 제너레이션 세대의 대표적 작가인 포크너를 서구적 세계문학의 대표로 전환해내고 있는 것이다. 전후 로스트 제너레이션 작가군에 대한 관심은 또 다른 번역 평론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世界の 視聽이 美國으로 쏠리기 시작한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나 第二次大戰以來 尤甚한 바가 있다. 더욱 韓國과 같이 密接한 關係에 놓인 國民으로서는 非但 그 經濟的, 政治的 部門만이 아니라, 世界文學의 新潮流로서 널리 認定되어 있는 이 나라 文學을 研究할 必要가 있으며 昨今 美國作品의 翻譯氣脈이 胎動하고 있는 이때, 從來 어떠한 作品을 外國人이 요구해 왔으며 무엇때문에 歡迎을 받았는가 하는 것은 알아들만 하다.²⁴⁾

23) 미국 로스트 제너레이션(Lost Generation) 세대의 문학은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활동을 한 작가들의 작품을 말하는데, 로스트 제너레이션에 속하는 작가들은 어네스트 헤밍웨이, 스콧 피츠 제라드, 존 스타인벡, 윌리엄 포크너 등이다. 이들은 1920년대 명성을 얻게 된 작가군으로 전후의 상황과 정신적 소외감을 드러내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Britannica,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Lost Generation," Encyclopedia Britannica, 27 Nov. 2019. (<https://www.britannica.com/topic/Lost-Generation>)

24) 맬컴 카우리, 『세계문화화 한 미국문학』 『문예』(1950.1)의 역자주.

1950년 1월 맬컴 카우리(Malcolm Cowley)의 글에 대한 역자의 소개는 『문예』의 세계문학 소개가 지향하는 지점을 선명하게 지시한다. 역자는 제2차대전 이후 ‘미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밝히고 냉전의 체제 인식을 전제로 미국의 문학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때 “세계문학의 신조류”로 간주되는 미국의 문학은 1차 대전 이후를 중심으로 한다. 미국의 문학은 19세기에 시작된 바 있으나, 세계문학으로서의 미국 문학은 1910년대 이후의 문학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역자의 인식은 맬컴 카우리의 논지와 공명하면서 ‘현대의 세계문학’에 대한 하나의 보편적인 상을 구상해 낼 수 있게 한다.

『세계문화화 한 미국문화』는 미국의 문학이 영국, 불란서, 독일, 북유럽,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등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글이다. 저자 맬컴 카우리는 헤밍웨이와 포크너의 선집을 발행하고 이들의 작품에 대한 재인식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비평가²⁵⁾이다. 그는 19세기에 출발한 미국 문학이 1910년에 “그 역량과 특이성을 발휘”하였다고 서술한다. 미국 문학의 역량은 세계적으로 번역되어 출판된 미국 문학을 통해 검증되는데, 맬컴 카우리는 국가별로 주목받는 작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세계로 번역된 대다수의 작품들이 로스트제너레이션 작가들의 작품이었다고 보고한다. 맬컴 카우리의 글을 통해 세계문학이 된 미국 문학은 특정의 가치를 함축하게 되는데, 그것은 “에머슨, 멜빌, 횃트맨”이 지니지 못했던 것, “대서양이 미국문화를 백년이나 뒤떨어지게하였다는” 인식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이었다.

맬컴 카우리의 글은 유럽 문명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던 미국 문학이 세계의 문학이 될 수 있었던 이유로, 근대적 문명, 물질적 풍요에 대한 반성적 의식을 드러낸 로스트제너레이션 작가군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한국의 지식인들은 근대 문명과 물질적 풍요에 대한 이들의 비판정신에 공감하면서 로스트제너레이션 세대의 문학을 통해 실패한 근대 이후의 세계를 상상한다. 1950년 1월은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예』는 미국의 전후 세대들의 문학을 통해 전후의 감각을 공유해나간다. 『문예』의 논조가 전쟁 발발 전과

25) Britannica, The Editors of Encyclopaedia, August 20, 2020.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Malcolm-Cowley>)

후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에 기인한다. 『문예』의 필진들은 세계문학에서 근대성에 대한 비판의 조류를 발견하고 한국전쟁을 기계적 근대 문명의 산물인 공산 진영과 근대 문명을 극복하려는 자유 진영의 갈등으로 간단히 도식화한다. 이는 반공의 논리에 내재하는 이념적 갈등의 구도를 은폐하고 진영의 갈등 구도를 문명과 야만의 관계로 전유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세계 대전 후의 문명비판의 논리를 근간으로 냉전체제 하의 한국전쟁이 해석되고 전쟁의 주체는 스스로의 역사적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문예』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꾸준히 해외의 문학과 사상을 소개하는데, 미국 문단 내 로스트 제너레이션 작가군을 중심으로 세계문학을 사유하려는 시도는 지속된다. 1953년 2월 『문예』는 E. 바겐크네히트의 글 「전설과 현실」(목차에는 전통과 현실로 되어있으나 전설의 오식으로 보인다.)을 통해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대표적인 작가인 헤밍웨이에 대해 깊이 있게 소개한다.²⁶⁾ 1953년 9월에는 막스웰 게이스마(Maxwell Geismar)의 글 중에서 전후 세대를 분석한 부분을 발췌 번역하여 게재하고, 1953년 11월에는 헤밍웨이와 포크너 등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작가로 알려져있는 셔우드 앤더슨(Sherwood Anderson)의 「젊은 작가에게」라는 글을 실는다.²⁷⁾ 이처럼 『문예』지의 번역 평론들은 미국을 새로운 세계문학의 보편으로 설정하는 한편 이들의 문학이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 정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강조한다. 미국의 전후세대가 드러낸 문명에 대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세계체제를 이해하고 냉전의 갈등 구도를 근대 문명의 실패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다.

『문예』지의 로스트제너레이션에 대한 관심은 창작 작품에도 반영이 되어 총 7편의 번역 작품 중 쥘 스타인벡, 헤밍웨이, 모리 칼라간²⁸⁾ 등 3편의 작품이 로

26) 이 글이 포함된 *the Cavalcade of the English Novel*의 전체 내용은 전체 영문학에 대한 개괄적인 사상을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ichard E. Amacher, 1953 "Book review: Cavalcade of the American Novel," *The New England Quarterly* Vol. 26, No. 2.

27) 1953년 6월에는 *The Atlantic Monthly*에 윌리엄 포크너의 "Sherwood Anderson, An Appreciation"이라는 글이 실리기도 한다.

28) 모리 칼라한 역시 1929년 파리에서 스콧 피츠 제라드와 어네스트 헤밍웨이와 교류한 것

스 트제너레이션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예』는 릴케의 작품 『말테의 수기』를 제외하고는 영미문학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데, 후반부에 게재된 존 홀리트의 작품이나 이브린 엘킨드의 작품은 각각 1949년과 1953년에 발표된 작품들로 매우 당대적인 미국작품들이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들 작품들은 역자가 설명한 바와 같이 모범적 세계문학의 예시가 아니라 단순히 “현대미국작가들의 경향”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²⁹⁾

미국의 문학을 세계의 문학으로 설정한 『문예』는 로스트제너레이션 세대의 문학을 현대 서구의 문학을 대표하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세계대전 이후 구성된 전후의 감각을 냉전의 시대로 소환한다. 이러한 전후의 감각은 프랑스 작가인 까뮈와 사르트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실존주의라는 새로운 사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로스트제너레이션이 1차세계대전 후의 세계상을 반영한다면 실존주의는 2차세계대전 후 등장한 문명에 대한 위기의식의 결과였다. 한국 문단은 실존주의를 근대적 과학 문명, 그리고 이로 인한 전쟁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한 반성으로 설명한다. <현대사상강좌>의 필자이자, 한국철학계에 실존주의를 소개한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진 박종홍³⁰⁾은 실존주의를 “근대 과학 문명에 인제 그나마 진저리가 나서 인간의 본래적인 참된 면목을 돌아가자는”³¹⁾ 요구로 설명한 바 있다. 휴머니즘적 기조를 바탕으로 하는 실존주의에 대한 수용은 『문예』가 내세운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과 강렬하게 공명하면서 한국 문단에 수용된다.

총 2회에 걸쳐 『샤르트르 문학론』을 연재한 양병식의 글을 비롯하여, 김기림의 『문학의 운명』(1950.3), 배성아의 『헤-겔이후의 독일철학』, 김춘수의 『옛세이

으로 알려져 있다. Encyclopaedia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Morley-Callaghan>

29) 여기 역출한 작품은 우수한 작품이라서 보다는 현대미국작가들이 몇개의 경향에서 그 중 리얼리스틱한 경향의 것을 소개하려는 데서 선택하였을 뿐이다. 존 홀리트, 『제스추어』 『문예』(1953.12)의 역자주.

30) 나종석, 2010 『1950년대 실존주의 수용사 연구』 『헤겔연구』 27, 251면.

31) 박종홍 외, 1957 『철학자가 오늘과 내일을 말하는 좌담회: 휴머니즘을 중심으로』 『사상계』(1957.6).

와 현대정신』, 조연현의 『실존주의해의』(實存主義解意) 등의 글들은 모두 실존주의를 기반으로 당대의 문명을 진단하고 있는데, 조연현은 실존주의가 “제이차 대전후의 세계적 화제가 되어있는 가장 유행적인 사조”라고 밝히며, 현대의 실존주의가 “휴머니즘의 최후의 것으로 절망적이며 비극적인 속성으로 정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예』의 필자들은 실존주의를 근거로 문명비판적 태도를 강화하면서 한국 문학 내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요청한다. 그것이 곧 서구-근대의 문명에 대응되는 동양-현대의 문명이며 제3의 휴머니즘³²⁾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문예』는 물질과 정신, 서양과 동양으로 이원화 된 세계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과 의 관계를 재설정한다. 새로운 보편으로서의 자유 진영은 서구적 근대를 극복한 현대의 이상을 공유한 “세계”로 상상된다.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전후의 감각을 공유하였던 『문예』는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사이에 놓인 시차들을 삭제한다. 냉전의 체제리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생략되고 이들의 세계는 전후의 세계로 일원화된다. 정신적 문명이 발달한 대한민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모운숙의 논리는 한국전쟁에서 이념적, 민족적 갈등의 구도를 제거하고 휴머니즘이라는 보편성을 입힌 결과였다. 한국전쟁의 극복은 근대 이후에 도래하는 현대, 휴머니즘적 이상으로 성급하게 환원된다. 이제 한국은 기계화, 공식화된 근대의 희생양이며 따라서 근대적 가치의 극복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가치를 지닌 문명국이 된다. 1950년대 청문협 중심의 민족진영은 한국전쟁을 단순한 반공주의가 아닌 세계사적 문명의 비극으로 담론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2) 인간의 창조적 의욕과 개성적 기능과 정신적 자유를 멸각한 기계관과, 그것의 실현 사회에서 인간성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억압되고 경화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위축과 억압과 경화에서 자유 무애의 인간성(이 말은 최근 특히 일부 소련 기행문 작가에 의하여 인간의 동물성이라는 뜻으로만 오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배제하기 위해서 인간혼이란 말을 써도 좋다는 것을 참고삼아 주의해 둔다)을 옹호하려는 것이 곧 제3의 휴머니즘의 지향이며, 이러한 제3휴머니즘을 기조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본격 문학 혹은 진정한 순수문학이라는 것을 상급할 때, 어째서 이것만이 인간성의 오호를 부르짖게 되며 부르짖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김동리, 2013 『본격문학과 제3세계관의 전망』 『김동리문학전집』 32, 계간문예, 109면.

3. 냉전의 세계인식과 보편적 민족 문학으로서의 전통론

『문예』는 해외 문학에 대한 소개를 통해 근대 이후의 것으로서의 세계문학을 전망하는 한편 이와 같은 현대의 이상에 맞는 민족적 전통을 고안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 『문예』에는 전통과 민족 문학에 관련된 다양한 비평문이 게재되는데 이를 통해 세계문학과 민족 문학의 관계가 재설정된다. 대표적인 글은 「번역문학과 관련하여」(백철, 1949.8), 「문학과 전통」(조연현, 1949.9), 「고전주의와 현대적 의의」(조지훈, 1949.10), 「현대문학의 고전적 의의: 민족문학의 전통을 위한 시론」(조지훈, 1950.4), 「전통과 개인적 재능」(T.S 엘리엇, 1950.4),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조운제, 1953.2) 등이다. 이들 평론은 전통의 확립을 민족 문학 건설의 일차적인 목표로 내세우면서 새롭게 등장한 냉전 체제 내에서 이와 공명하는 한국문학의 문명적 가치를 구성해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민족 문학의 개념은 해방 직후의 좌익 문단이 내세웠던 근대 문학의 목표와 결별한다. 냉전의 체제 아래 보편으로 상상되었던 자유진영의 휴머니즘을 세계문학으로 전제하는 동시에 이러한 세계적 보편성에 맞는 새로운 문학적 전통을 구상해 내는 것이다.

『문예』는 전통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건설되어야 할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백철과 조연현의 비평적 관점의 차이이다. 임화와 김남천 등이 월북한 뒤 좌우의 균형 감각을 강조하며 남한에 남은 백철³³⁾은 해방 후부터 전쟁 이후까지 활발한 활동을 한 비평가이다. 김동리를 제외할 경우 남한에서 지속적으로 문학비평 활동을 한 작가들을 얼마 되지 않는데, 『문예』에 해외문학과로 활동하였던 김진섭과 소설가인 염상섭 등이 평론을 남기고 있다는 점은 남한 비평계의 수적인 열세를 짐작하게 한다. 백철은 이와 같은 위태로운 비평계를 지지하는 얼마 안 되는 인물이었지만, 한 때, 계급 문학론에 동조했으며 임화와도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예』가 내세운 순수문학의 이상과 일정한 간극을 드러내는 작가이다. 따라서 『문예』는 그의 논지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한편, 그의 사상에서 발견되는 계급문학의 흔적

33) 김윤식, 2008 『백철 연구』, 소명출판, 455면.

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백철이 전제하는 문학 건설의 방향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³⁴⁾

『문예』 창간호에는 번역을 통해 민족 문학 건설의 방안을 제시하는 백철의 「번역문학과 관련하여」(1949.8)와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를 비판하는 조연현의 글(「이념의 공허와 그 모호성: 백철씨의 『조선신문학사조사』를 중심으로」, 1949.8)이 동시에 실린다. 표면적으로 두 글은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민족 문학 건설’에 있다는 점에서 동궤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문예』는 ‘번역을 통해 민족 문학의 세계성을 달성해야한다.’는 백철의 논의를 게재하는 동시에 조연현의 글을 통해 그의 문학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통해 백철의 문학론 일부를 수용해나갈 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론과 변별되는 ‘순수문학’ 담론 내의 민족문학건설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차이는 세계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³⁵⁾

34) 김윤식은 백철의 문학관을 수용 역시 ‘문협정통과’ 스스로의 역량 증강을 증명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한다. 위의 책, 459면.

35) 백철과 조연현의 글은 해방 직후부터 이어져 온 순수문학에 관한 논쟁의 맥락 하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해방기 김동리와 김동석을 중심으로 좌우의 이념 갈등을 전제로 하는 순수문학 논쟁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이다. 순수문학 논쟁이 당시 좌우의 이념을 축으로 갈등하는 문단의 상황을 가시화 한 결과였다면, 백철과 김동리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논쟁은 이념이라는 표면적 갈등을 넘어서 해방후 한국문학이 지향한 문학적 전망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백철과 김동리의 논쟁은 김동리의 『해방』을 ‘실패’로 규정하는 백철의 비평에서 시작된다(「소설의 길」, 1950.2). 김동리는 자신의 첫 장편에 대한 백철의 평가가 여전히 문학작품에 선행하는 이념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백철의 평가를 ‘근봉비평’으로 일축한다(「현대문학의 길 소설의 길을 반박함」, 1950.3). 조연현은 김동리에 대한 백철의 평가 이전에 백철을 향해 ‘개념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여하한 비평문의 한 구절도 기록할 수 없’는 비평가(「개념과 공식」, 1948.2)라는 혹평을 한 바 있으며, 이러한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문예』에 「개념의 공허와 그 모호성」을 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백철과 청문협문인과의 갈등은 『문예』를 통해 임금재와 백철의 갈등으로 전이되는데, 임금재가 백철에 관해 “새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 모색하는 문학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혹평하는 한편, 백철 역시 임금재에 대해 “남을 중상하고 무고하여 그 작품이 죄명을 쓰고 문단에서 추방되는 기회를 엿보는 비굴한 멧개의 분자”라는 날카로운 비판을 내세운다(「외국문학과 그 번역」, 1953.11). 두 사람의 갈등은 문학론 외의 정치적인 차원을 고려해야 하는바 이론적인 것이라기보다 감정적인 대립이 앞서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갈등의 구도는 순수문학의 위기의식이 좌익 문인들의 월북 이후 종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번역문학과 관련하여』에서 백철은 민족 문학의 빈곤을 해방 후 문단의 현실로 요약해낸다. 그리고 그 원인을 “지방적인 것에 집착한 결과, 세계적인 지성과 통하는 것을 망각한 데에 있다.”고 규정한다. 백철의 논의 하에서 민족 문학은 세계문학을 ‘번역’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세계성과 통하는 방법이 번역이라고 할 때, 백철이 내세우는 세계성에 대한 전망은 서구의 문학을 지칭한다. 민족 문학은 서구적 근대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문학을 보편으로 삼아 그 지방성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백철의 세계문학 인식은 백철이 지닌 근대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³⁶⁾

民族文學이라는 文子上의 意味에 過히 固執하여 또는 그 前의 日帝的인 要素를 排斥하는 不定이 強한 나머지 그 餘勢로서 曠와 未來에 對한 展望을 생각지 않고 오직 地方的인 것 過去의 것에 對한 追求에 民族文學建設의 主見이 세워진듯하다. 그것은 한 自然發生的인 致勢이긴했다. 그러나 그 方途는 狹窄한 길 결국 絕壁과 부닥칠 小路로서 文學은 곧 이 小路에서 나와 大路를 擇해야할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近年 우리 文學運動이 失敗한 原因, 그것이 貧困해질밖에 없는 主原因이 그 民族文學이 너무 地方的인 것에 執着해서 世界的인 智性和 通하는 것을 忘却한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民族文學은 果然 一言으로 說明하여 한개의 特殊性의 文學이요 地方性의 文學이다. 그러나 民族 그 自體가 오직 그地方과 傳統上에서만 生死되는 存在가 아니고 恒常 世界的인 關聯性우에 일우진것이라면 우리들의 民族文學도 그것은 地方的일수록 世界性和 通한다는 論理우에 九想되어야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³⁷⁾

백철은 민족 문학이 “한 개의 특수성의 문학”이며 “지방성의 문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민족 문학이 세계성과 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구적 근대를 세계사적 보편으로 삼은 백철에게 지방성에 갇힌 민족 문학의 전통은 결국 절벽에 부딪힐 ‘소로(小路)’에 불과하다. 세계성과 연결되지 못한 지방적인 민족 문학은 후진성에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구의 문학을 전범으로 삼아 이를 번역함으로써 민족 문학의 지방성을 극복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백철의 논의에는 유럽의 근대 문명을 전제로 하는 문

36) 한수영, 2015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45면 참조.

37) 백철, 1949 『번역문학과 관련하여』 『문예』(1949.8).

학에 대한 굳건한 신념이 존재한다. 번역을 통해 달성되는 세계성은 서구 문명이 만들어낸 근대적 이상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백철은 근대라는 전망을 내세우면서 번역을 통해 민족 문학이 세계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때 백철에게는 민족 문학에 선행하는 세계 문학이라는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근대화된 문명으로 치환된다. 이와 같은 백철의 논의는 근대 문명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의식을 견지해온 『문예』의 세계인식과 상이한 지점을 드러낸다. 그리고 백철이 구상하는 근대의 이상과 조연현이 새롭게 고안하는 현대의 전망 사이에서 선명한 대립각을 만들어낸다. 조연현은 「이념의 공허와 그 모호성」이라는 글을 통해 백철의 세계성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근대 이후의 세계인식을 전제로 민족적 전통의 수립 방안, 새로운 민족 문학 건설의 방안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념의 공허와 그 모호성」은 1948년에 발간된 『조선신문학사조사』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구적 근대를 근간으로 세계적 보편을 추구해야 한다는 백철의 논의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이 글은 단순히 백철의 『조선신문학사조사』(1948)를 비판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조연현의 『한국현대문학사』(1956)의 등장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백철에 대한 조연현의 비판은 해방 이후 치열하게 갈등해온 한국 문학의 계보와 그 정체성에 대한 논의의 연속선 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백철의 문학사를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좌익 중심의 근대적 민족 문학 건설론을 부정하고 새로운 민족 문학의 건설 방향을 제안하려는 순수문단의 시도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조연현은 이미 「개념과 공식」(『평화일보』, 1948.2)이라는 글에서 백철의 문학사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백철의 문학사서술이 ‘문학사조’라는 개념적 용어에 간헐있음을 비판한다. 개념과 공식으로 『조선신문학사조사』를 규정하려는 조연현의 태도는 「이념의 공허와 모호성」에서 보다 강화된다. 문학적 산문에 대한 개념적 설명에 문제를 제기하였던 조연현은 그것이 문학이 아닌 ‘이념’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백철의 문학사 서술은 결국 김동인, 박연희, 김기진, 염상섭, 임화 등의 문학가들의 논의를 복사한 형태이며,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하나의 사조로

환원하는 공식주의일 뿐이라고 논의하는 것이다. 백철의 문학사를 “기존 자료의 복사”일 뿐이라고 평가한 조연현은 백철의 문학사 서술이 내포하는 근대적 민족 문학의 전망을 구태의연한 구습의 반복으로 일축한다.

조연현의 비판에는 서구 문학을 도달해야 할 전망으로 설정하고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 한국 문학을 전제로 하는 백철의 문학사 서술방식에 대한 부정이 내포되어있다. 조연현은 백철의 세계성이 ‘정체된 아시아’라는 담론의 구조에 간헐 있음을 밝히면서 백철이 내세운 ‘전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아세아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곧 백철의 문학사 서술방식에 내포된 이념적 성격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조연현의 논리 하에서 백철의 문학사 서술은 곧 마르크스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와 다를 바 없으며, 동시에 계급 문단이 공유했던 근대적 세계인식의 문제점, 문학 앞에 정치적 이념을 둔 세계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조연현은 백철의 문학사 서술에 대한 비판을 한국 문단에 잔존하는 계급문학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해내면서 기존에 논의 되었던 민족문학건설의 과제를 순수문학의 자장 내부로 이동시킨다.

백철의 『신문학사조사』에 대한 비판을 통해 조연현은 “공식”이라는 용어가 함축하는 계급문학적 비평의 태도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냉전체제 내부에서 민족 문학이 전망해야할 보편성으로서 휴머니즘을 재구해낸다. 조연현은 근대적 서구의 사조를 보편으로 삼아 민족 문학을 서술해나가는 백철의 문학사 서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백철의 세계성을 부정한다. 그리고 계급문학의 가능성이 종결된 후 자유 진영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보편적 세계의 상을 “인간의 본질적 생명”으로 구체화한다. 김동리와 조연현의 순수문학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던 휴머니즘이 다시 근대 이후 세계의 전망을 담지하는 보편적 이상으로 소환되는 것이다.

文學史는 한 人間의 成長의 科程처럼 그것을 이루어놓은 人間의 本質的인 生命의 命威가 形象化되어있지 않으면 아니된다는데 있는 것이다. 歷史란 單純히 死文化한 過去의 記錄이 아니라 現在는 물론 未來에까지 作備해가는 生命의 要素임으로 歷史는 우리의 念的인 理解의 對象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未來와 前途를 試驗하고 開拓해가는 科題의 對象인 것이다.³⁸⁾

문학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조연현의 논의에서 민족 문학의 전망은 생명적 요소라는 광의의 것으로 대체된다. 민족 문학이 인간과 생명을 근간으로 세계문화화 해야 한다는 논의는 백철이 민족 문학의 미래로 내세운 근대적 세계문학에 대한 전망을 거부한다. 그리고 세계성을 근대 이후에 대한 광범위한 전망, 휴머니즘이라는 이상으로 수렴한다. 이 과정에서 ‘민족진영’을 근간으로 하는 새로운 문학사, 민족 문학의 정체성이 구체화된다. 조연현은 자유 진영이라는 냉전적 세계인식을 전제로 『조선신문학사조사』를 부정하고 휴머니티를 통해 새로운 민족 문학에 대한 전망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서 『한국현대문학사』를 제출해내는 것이다.

『한국현대문학사』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조연현은 문학사에서 근대를 제거하고 현대를 고안해낸다.³⁹⁾ 한국의 민족 문학사에는 ‘근대가 없다’⁴⁰⁾는 인식을 전제로 구성되는 ‘현대’의 이상은 서구의 근대를 극복한 지점에 놓이는 민족 문학의 새로운 미래가 된다. 순수문학론 내부에서 발견되는 세계적 보편은 서구적 근대를 넘어선 곳에 놓인 ‘현대’이다. 근대를 부정하고 등장하는 현대의 이상 하에서 민족 문학의 전통은 더 이상 지방적이고 향수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내야 할 미래로 직결된다. 김동리가 내세운 제3의 휴머니즘과 같이 근대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상상은 근대의 초극을 목표로 하면서도 다시 근대와 현대라는 선형적인 역사주의에 귀속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극된 근대의 다음에 올 휴머니즘, 보편적 이상으로서의 현대는 민족 문학과 세계문학의 새로운 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근간이 된다.

38) 조연현, 1949 『이념의 공허와 그 모호성』 『문예』(1949.8).

39) 조연현은 14세기-19세기를 서구의 근대, 20세기 또는 1차 세계대전 이후를 현대로 바라보는 편년체적인 감각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근대가 시작된 19세기 후반 즉 1894년의 갑오개혁은 서구의 근대가 완성되는 시점이고, 서구의 현대가 시작하는 1차 세계대전(1914-18)은 한국의 1919년 3.1. 운동에 대응한다. 김동식, 2018 『이식, 근세조선, 후진성: 1970년대 근대문학기점논의를 위한 예비적 고찰』 『한국학연구』 48, 723면.

40) 한국 근대사 과정의 기형성을 가장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그 하나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한국엔 근대가 없었다는 점이며, 그 또 하나는 한국의 현대적인 과정을 엄밀히 분석하면 그것은 구라파의 근대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연현, 1956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사, 24면.

조연현과 김동리가 내세우는 세계문학의 보편성은 근대를 극복하려는 의지 즉, 기존의 근대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보하는 것이지만,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다시 보편적 인간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동어반복적인 이상일 뿐이라는 한계를 노정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예』의 민족 문학론은 민족 문학의 이념이 냉전의 체제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다. 조연현은 ‘현대’라는 개념을 통해 보편적 세계의 개념을 광의의 휴머니즘으로 환원한다. 그리고 백철이 내세운 근대라는 이상에 놓여있는 세계성의 개념 하에서 미달태의 것으로 상정되어 있는 민족 문학의 위치를 재설정한다. 이제 민족 문학은 계급문학이 내세우는 ‘아시아적 정체성’이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방성을 보편성의 일부로 위치시킬 수 있게 된다.

『문예』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문학과 그 세계사적 흐름을 소개하면서도 번역을 통해 세계성을 달성해야한다는 백철의 주장을 민족 문학 발전의 방안으로 삼지 않는다. 한국의 민족 문학은 휴머니즘을 통해 진영 내부의 세계성을 공유하면서도 근대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통해 서구적 문명의 한계를 강조한다. 그리고 스스로의 전통론을 강구하는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조연현의 『문학과 전통』(1949.9)이라는 글을 시작으로 『문예』는 문학에 내포된 민족적 전통에 관련된 논의를 구체화해나간다. 『문예』에서 전통에 관련된 논의는 조연현, 조지훈, 조윤제 등을 통해 전개된다. 이들은 한국 문학의 빈곤이라는 백철의 문제 인식을 공유해나가면서도 빈곤함의 해소방안을 민족의 외부에 놓인 세계성이 아닌, 민족의 내부에 놓인 전통에서 찾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전통의 개념이 특수한 방식으로 재설정 되는데, 이는 ‘현대적 전통’으로 구체화 된다.

『문학과 전통』에서 조연현은 민족과 전통의 관계를 본질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민족의 미래의 방향이 민족의 신화 속에 결정되어 있다.”는 웨링의 말을 인용한다. 즉, 민족 문학의 건설은 민족성에 내포되어 있는 본질적인 전통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동시에 민족적 전통을 과거의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민족의 창조적인 능력에 더 많이 좌우되는 것으로 설정한다. 민족적 전통을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적인 삶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전환해내는 것이

다. 이를 통해 조연현은 민족적 전통의 개념에 과거의 시간성을 제거하고 현대의 전망을 삽입할 수 있게 된다. 동시대적으로 창조되는 전통은 한국 사회가 외부적인 간섭과 제압으로 인해 전통의 기초를 마련할 수 없었다는 현실 인식에 기인한다. 근대가 부재 하는 한국 사회가 과거의 시간 속에서 민족적 전통을 수립할 수 없었음을 전제로, 조연현은 전통의 개념을 현재적인 것으로 재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연현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질문을 제거하면서 민족 문학의 전통을 미래를 향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것으로 설정한다. 이때의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제 한국 문학의 빈곤함, 후진성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는다. 전통은 현대적인 차원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T.S.엘리엇의 전통론⁴¹⁾과 공명하면서 ‘창조되는 고전’이라는 개념을 형성해낸다. 조연현이 전통에 놓인 과거의 시간성에 침묵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현대로 환원하고 있다면 조지훈은 현재적으로 재창조되는 전통의 개념을 바탕으로 서구적 근대라는 세계문학의 이상을 부정한다. 그리고 한국 문학의 특수성 내부에서 현대적 고전의 가치를 재생시킬 것을 요청한다.

1950년 4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문예』에는 T.S. 엘리엇의 「전통과 개인적 재능」이라는 글과 조지훈의 「현대문학의 고전적 의의」라는 글이 함께 실린다. 두 편의 글은 조연현의 「문학과 전통」에서 논의된 민족 문학과 전통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면서 냉전 체제의 보편성 내에서 민족 문학의 위치를 재설정해낸다. 백철이 내세웠던 아시아적 정체성에 기반한 후진성으로서의 민족 문학이 아닌 자유 진영의 보편성과 공존하는 동시대적인 민족 문학의 전통을 구

41) T.S. 엘리엇은 *Tradition and The Individual Talent*(1919)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전통론을 구체화한다. 이때의 전통은 과거의 지식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식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에 동화시키는 것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과거의 문학작품들의 전통은 이상적인 질서인 동시에 개인들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유기적인 것으로 존재한다. 엘리엇은 작가에서 이와 같은 전통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 예전의 질서를 변용하면서 작품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은원, 1990 『T.S. Eliot의 ‘전통’관과 그 시적 형상화』,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9면; Jane Cooksey, 1978 “The Poetic Theory of T.S. Eliot: An Investigation,” West Kentucky University, pp.15-16.

성하고자 하는 것이다.⁴²⁾ 그것은 앞서 모윤숙이 말했던 바와 같이 정신적인 것으로서의 한국 문학의 독자성, 근대 문명의 실패를 극복하게 해주는 가능성으로 등장한다.

조지훈은 T.S. 엘리엇의 전통론을 호출해내면서 “고전주의가 현대문학의 과제로 들어와 있다.”고 단정한다. 조지훈은 “고전문학이 항구적인 것”에 비해 “고전주의는 항구적인 것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 구분하고 백철이 자신이 제시한 “고전주의와 고전문학이라는 말의 개념을 혼동한 몰상식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민족 문학은 서구의 근대적인 고전문학을 섭취,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전을 창안함으로서 완성될 것이라 강조한다. 조지훈의 논의는 T.S.엘리엇의 전통론을 전제로 과거와 현재의 역사의식⁴³⁾에 기반하는 고전의 의미를 새롭게 설정한다. 이러한 논의에는 과거의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전통의 개념을 확장하여 고전주의를 통해 다시 만들어지는 문화를 전통의 일부로 삼입하려는 기획이 놓여있다. 이를 통해 현대의 한국 문학은 과거의 문학을 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창조함으로써 민족 문학의 전통을 수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대문학의 고전적 의의』를 통해 조지훈은 현대문학의 과제로서의 고전을 요청하고, 춘향을 새롭게 현대화한 서정주의 『추천사』와 같은 작품을 높이 평가한다. 재창조되는 전통의 개념 속에서 ‘고전’에는 과거의 문학이라는 시간성이 삭제된다. 민족적 전통은 서구적 근대를 목표로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한 지점에 놓인 휴머니즘-현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새로운 시대의 세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된다. 휴머니즘은 민족적 전통과 세계 문학을 잇는 핵심적

42) 오창은은 ‘엘리어트식 전통론의 수용의 이면에는 서구에 대한 동일화의 욕망이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엘리어트에서 촉발된 한국적 전통 논의의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엘리엇은 근대 없음으로 사유되었던 당대의 문단에서 전통의 구체적인 실상을 기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창은, 앞의 글 참조.

43) 엘리엇이 생각하는 전통이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필요할 때는 크나큰 노력을 기울여서 획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역사적 의식이다. 이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과거로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남송우·정해룡, 2000 『1930년대 한국문학에 나타난 T.S. 엘리엇의 영향』 『비교한국학』 6, 81면.

인 가치로 등장한다. 한국문학은 부재하는 근대를 구성하는 대신 휴머니즘이라는 이상을 공유함으로써 단숨에 세계성을 획득한다. 이제 민족 문학의 특수성은 휴머니즘이라는 현대의 이상 속에서 모순 없이 세계성과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근대를 부정하고 현대를 전망하는 것은 문학적 전통을 세계화하는 과정인 동시에 현대의 세계성을 자유진영의 내부로 귀속시키는 과정이기도 했다. 전쟁 발발 직후 『문예』를 통해 발표된 조연현의 『공산주의의 운명』(1950.12)은 전통에서 과거를 삭제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산주의에 과거의 시간을 입힌다. 1.4 후퇴가 이루어지기 직전, 국군의 서울 수복이라는 결과에 집중한 조연현은 6.25를 “제삼차대전”으로 설명하면서 냉전적 갈등의 구도를 민주주의와 파시즘의 갈등 관계로 전유해나간다. “육이오의 불의의 습격”이 “일본의 진주만 습격”과 다를 바 없다고 진단하는 조연현의 현실 인식 속에서 진영의 갈등 구도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양차 세계대전과 같은 근대적 문명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냉전체제는 제국주의적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 근대적 기계문명의 세계와 휴머니즘의 이상을 향하는 현대적 세계의 대결로 구조화된다. 우리의 역사가 근대에서 현대로 발전해나간다고 할 때, 과거를 반복하는 공산주의의 패배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같다. 따라서 조연현에게 있어 공산주의의 패망은 피할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국전쟁을 제삼차대전으로 설명해나가는 논의의 구조는 조연현이 구상해낸 ‘현대’의 의미를 짐작하게 한다. 한국전쟁과 양차세계대전을 동궤에 놓는 “전후”라는 시간성은 아시아적 정체성이라는 열등감으로부터 한국 사회를 구출해 낸다. 전쟁을 통해 한국 사회는 1,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서구사회와 동일한 시간성 위에 도달하게 된다. 한국은 제국주의로 인해 근대적 발전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근대의 한계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근대 이후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비약한다. 공산주의 사회는 과거에 놓인 후진국으로 설정되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놓인 아득한 지리적 거리감은 오늘의 현실이라는 시대적 동질감으로 변모한다. 한국과 미국은 전후라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근대 문명의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지닌 세계인의 일부가 된다.

『문예』에 추천사나 산문 외 창작품을 거의 신지 않은 김동리가 유일하게 발표한 시인 『젊은 미군의 깃발』(1954.3)은 이와 같은 세계인식의 전환을 예고한다. 『문예』의 마지막 호인 21호에 실린 이 시는 ‘벤프리트 將軍에게 드리는 禮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미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벤플리트(James Alward Van Fleet) 장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이 시는 미군의 참전을 “태평양을 한숨에 건너 뛰는” 意氣로 설명하면서 다가오는 젊은 미군의 깃발을 통해 새로운 “형제”이자 “친구”가 된 한미관계를 상징적으로 그려낸다. 이 시에서 한국과 미국을 잇는 것은 단순한 진영의 논리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에서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희생을 통해 유지되는 숭고한 세계정신으로 변모한다. 전장에서 죽음을 맞은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이 고장에 뿌려주신 선혈”은 태평양의 거리를 뛰어넘어 두 개의 공간을 하나의 핏줄로 연결한다. 자유 진영은 정치적 이념이 아닌 의기로 힘을 합친 형제애를 통해 결속할 수 있게 된다.

『문예』의 문학 담론은 반공주의적 세계관을 타락한 과거의 문명을 구원하기 위한 신성한 노력으로 설명한다. 국군과 UN군은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의 문명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한다. 분단된 국가 대신, 자유 진영의 세계정신이 잔혹한 전쟁의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문예』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정신적 문명으로 설정하면서 민족 문학의 의미를 재설정한다. 민족 문학은 더 이상 부재 하는 근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현대의 가치를 담은 전통의 창조를 통해 한국 문학은 세계적인 민족 문학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후 한국 사회에서 문학적 전통은 근대 이후의 세계를 모색하기 위한 투쟁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전후에 이루어진 전통에 관련된 논의들은 단순히 현실에서 벗어나서 과거의 문화를 복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들의 논의는 새로운 체제 내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재설정하기 위한 지극히 당대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이기 때문이다. 순수문학론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진영은 근대를 극복한 현대를 하나의 이상으로 삼아 전쟁의 상황을 설명한다. 이들의 민족문학론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거는 전근대적 전통이 아닌 기계적 근대문명이며 한국전쟁은 이와같은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세

계사적 흐름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예』의 전통론은 민족문학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전후 문학론이 세계의 체제와 어떻게 교섭해나갔는지는 설명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냉전의 세계체제 내부에서 구현된 또 다른 반공주의, 열전 사회의 극렬한 반공주의의 담론적 기반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 결론

『문예』는 전쟁기와 전후를 거치면서 발간된 문예지로, “순문예지”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청문협 중심의 순수문학론의 실체를 목격하게 해주는 잡지이다. 『문예』는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평론을 배제하면서도 반공주의적 색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순수문학담론이 지닌 특수한 성격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순수문학”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이념적인 담론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예』의 성격은 당대 문단의 모순적인 성격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모순성은 하나의 기만적인 태도인 동시에 한국 문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적인 상황에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남과 북으로 나뉜 한국 사회에서 한국 문학을 논의하는 것은 여전히 다양한 곤란함을 만들어낸다. 식민지 이전의 문학과 해방 후의 문학을 하나의 계보로 이해하는 과정에는 이북의 문학이라는 사라진 일부가 존재한다. 해금된 작가들은 월북작가들로 복권되었으나, 여전히 이들의 문학을 문단의 지형도 내부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찾기 어렵다. 분단된 사회에서 민족 문학을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필연적으로 일정한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순수문학론이 내세우는 반공주의적 민족문학론은 이러한 문제상황의 첫 장면이었다.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급변하는 세계와 국내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문예』의 작품들은 분단과 민족문학 사이에 놓인 모순점들을 생경한 상태로 노출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문학이 내포하게 되는 본질적인 한계들을 목격할 수 있다. 세계문학에 대한 소개글들과 전통론에 관련된 일련의 평론들은 냉

전의 체제 내에서 한국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기 정립의 과정을 거쳐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들이다. 냉전의 세계상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면서도 냉전이 아닌 열전의 형태로 하나의 예외성이 된 한국 사회의 담론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미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냉전 체제하의 문화 냉전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전후 한국문학의 특수성을 지시한다. 해방 이후 대두된 강렬한 민족문학건설의 욕망과 반공주의라는 체제의 논리가 공조하는 동시에 대립하는 긴장된 순간을 드러내는 것이다.

『문예』를 통해 설명되는 세계문학이 로스트제너레이션과 실존주의를 중심으로 설명된다는 점은 전후 한국 사회에서 상상된 세계와 민족의 관계를 구체화한다. 『문예』의 필자들은 서구의 문화, 그중에서도 미국의 문화를 세계의 문화로 설명하는 중에도 그것이 최후의 세계성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세계의 문화가 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는 점,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 서구적 근대성이라는 점을 전제로 근대 이후에 전개될 새로운 시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성에 대한 인식은 한국문화와 세계문화 사이에 놓인 간극을 전복시켜 새로운 정신문명의 가치를 고안해내기에 이른다. 영미와의 전쟁론을 지탱해왔던 식민사회의 동양주의는 냉전의 체제 하에서 새로운 세계주의로 확장되어 전후의 세계를 전망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세계성은 근대 사회의 모순을 극복한 휴머니즘으로 상상된다. 이제 민족적 특수성으로 존재하는 '전통'은 보편을 지향하는 발전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할 과거의 것이 아니라 제국-공산주의의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된다. 근대주의 내부에서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한국 근대 문학은 한국사회의 열등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근대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된다. 당대의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고전을 통해 한국 문학은 스스로의 기원을 새롭게 창안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전통론은 과거로의 회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미래와 연결된다. 순수문단의 전통 의식은 역사를 망각한 탈역사주의적인 사유의 결과가 아니라 강력한 역사주의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주의는 새롭게 구성되는 냉전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의 문학이 민족의 문학을 대표할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전후

의 민족 문학은 근대 이후의 휴머니즘이라는 광범한 목표를 통해 가장 정치적이면서도 가장 반정치적인 민족 문학의 틀을 구성한다. 이들의 세계인식은 냉전적 갈등의 실체이자 예외성으로 존재하는 한국사회의 현실과 그 문화적 성격의 특수성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인식적 지평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전통, 냉전, 민족주의, 로스트제너레이션, 실존주의, T.S. 엘리엇, 백철, 순수문학, 반공주의, 한국전쟁

투고일(2021. 1. 31), 심사시작일(2021. 2. 5), 심사완료일(2021. 2. 20)

〈Abstract〉

The Worldness of Post-war Literature And The Project Of
Modernized Tradition in The *Munye*

Lee, Min Young*

The *Munye*(literature) was a literary magazine that is published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Editors of the magazine advocate the pure literature in Korean society, where political ideology affected the literary discourse after liberation. Various texts of the Magazine depict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literary goal and the political reality. Editors of the *Munye* appear the attitude emphasizes the literature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olitics, but their critic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power struggle. The problem is not only of the *Munye* because those contradictions are based on the reality of Korean literature. They have agonized with the identity of national literature since the colonial period. And the intricacy of national literature troubled until now when the nation stays as a divided one.

The *Munye* had dealt with the complicated problems directly through the concept of pure literature. Since the purpose of pure literature is not about the nation but the universality, there are inevitable controversies in their arguments. Despite the editors are representative writers after liberation, their critics were considered as the vacant argument or nonsenses. It is because their literary theory is contradictory to their political attitude. Facing the contradictions of the pure literature theory in the 1950s, this article focused on the origin of their power in the literary discourse. And I explored the relationship after the Korean war between the cold war ideology and nationalism.

Analyzing the texts of the *Munye* is important because they have revealed how the discourse of pure literature attains the legitimacy of national literature despite the numerous contradictions. We could understand the tensions between the anti-communism of the world and the nationalism of Korea with the texts on worldness and tradit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College of General Education, Kookmin University.

The *Mumye* depicts the process of the goal of the nationalistic literary collude and conflict with the cold war ideology. Besides, these texts indicate the national literature in the 1950s established the validity of their theory with the attitude of criticism of modern civilization and the concept of tradition in the present. These discussions are based on the attention to global literature such as Lost generation writers in America, the existentialism of post-war, and the tradition theory of T. S. Eliot.

Those western literary theories offered the solid foundation to overcome the modern civilization, and writers of the *Mumye* suggest the new role of Korea for the next era in which the world could develop spiritual progress. They appropriate the prospect of the next era into the cold war system and confine the meaning of national progress as humanism, considering communists lost their humanities thus could not achieve their goal. Their perception of the worldness reveals the reality of the Cold War conflict. And, at the same time, it presents an important cognition that embodies the specificity of Korean society, which exists as an exception to the cold war system.

Key Words : tradition, cold war, nationalism, Lost generation, existentialism, T.S. Eliot. Baek Cheol, Pure literature. anti-communism, Korean war